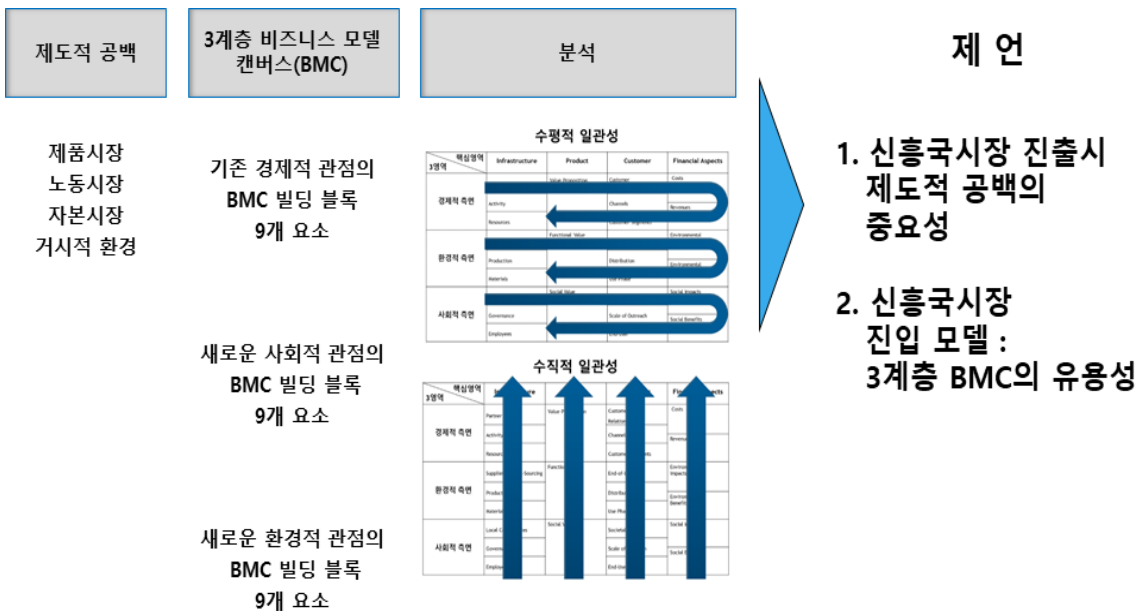


영원무역의 방글라데시 진출전략: 제도적 공백의 극복방안을 중심으로 이명무(李明茂)

영원무역은 우리나라의 해외투자 초기 단계인 1980 년 초 방글라데시에 OEM 의류제조 공장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영원무역의 비즈니스 환경은 신흥국의 저소득층 시장을 소비시장으로 간주하는 BoP (Base of the economic Pyramid) 1.0 단계에서 넘어서, 저소득층을 비즈니스 파트너로 간주하여 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BoP 2.0 으로 진화하고 있다. 본 연구는 영원무역이 현지 시장 진출할 때 직면한 다양한 제도적 공백(Institutional Voids)을 파악하고, 3 계층(경제·환경·사회)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Business Model Canvas)의 연구를 통해 제도적 공백의 극복 과정을 살펴본다. 더 나아가 BoP 2.0 의 개념을 바탕으로 영원무역이 진출 현지 국에서 펼치는 지속 가능한 상생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연구에서 해당 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남아시아의 맹주국인 인도에 진출한 한국 대기업이 직면한 제도적 공백 극복과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분석할 계획이다.



이명무(李明茂, 05azure@gmail.com)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인도어과에서 학사학위를 마치고 경영학과에서 경영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인도 IT 산업 관련 강의를 오랜 기간 운영하고 있으며,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 홍익대학교 교수 등을 역임하였다. 현재 성균관대학교 학부대학 소속으로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의 방문학자로 선정되어 남아시아의 제도적 공백(Institutional Voids) 관련 연구를 수행 중이다. 인도 IT 산업, BoP (Bottom of the Pyramid), 적정기술(Appropriate Technology), 프런티어 경영, 기술경영 등의 분야에 약 50 여 편의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인도 BoP 및 적정기술, 팹랩(Fablab)과 관련한 주제로 연구과제를 수행 중이다.

Date & Time: November 19 (Tues) 2019, 12:00-13:00
Place: Room 406, SNUAC (Bldg#101)